

23호, 2020년 6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사육사 “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서울숲 다시보기

서울숲 코로나19 힐링프로젝트 2탄
‘제비 논 모내기용 모를 키워보자!’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2탄: 서울숲 쓰담쓰담

‘함께 놀 권리’를 위한 숲속놀이터

서울숲 생일주간 행사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사육사 인터뷰

“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서울숲 사육사 최미선 ▲

서울숲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잘 조성된 정원과 숲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사슴 또한 ‘서울숲’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현재 27마리의 꽃사슴들이 서울숲 사슴우리에서 사육사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지요. 서울숲컨서번시가 생긴 이래 서울숲의 꽃사슴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돌보고 있는 공원의 유일한 사육사, 최미선을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서울숲 최고의 아이돌, 꽃사슴을 돌보고 있는 걸로 안다. 한편 부럽다. 우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 업무를 직접 소개해 달라.

서울숲공원에서 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선이다. 꽃사슴, 토끼 등 공원에서 돌보는 동물을 포함, 야생동물, 유기동물 등 모든 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육하는 동물들의 서식지 조성도 하고 있다. 보통은 사육사라고 한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했고,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다. 서울숲에서 일하기 전에는 동물원에서 일을 했었다.

그럼 동물원의 사육사와 공원의 사육사 차이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점이 다른가?

동물원에는 크게 조련사와 사육사가 있다. 조련이란 말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훈련을 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코끼리처럼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데 머리가 아주 좋은 동물들을 치료를 해야 할 때, 마취를 해서 눕힌 다음에 하는 것보다 훈련을 시켜서 상처를 보여주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동물원에는 수의사가 있고, 먹이를 마련하는 조리팀이 따로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은 또 따로 있고, 분변을 치우는 것도 따로 환경팀에서 한다. 사육사는 말 그대로 사육만 하면 되도록 세세하게 분업이 되어 있는

반면, 서울숲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물 관련 모든 일을 다 한다. 동물 분변 같은 경우 동물원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분변 처리를 고민하다가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다. 토끼 똥, 사슴 똥을 모아서 주면 퇴비장에서 친환경 퇴비로 만든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공원 사육사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 사육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쉽게 말하면 수의사는 아픈 걸 고치는 거고, 사육사는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잘 먹이고 서식지를 잘 조성해주는 것도 해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역과 방제다. 그 외에는 계절별, 털갈이할 때 등 시기별, 동물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서울숲에서는 주로 꽃사슴, 토끼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초식동물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사슴과 토끼는 같은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비슷하다. 사슴 토끼 말고도 곤충식물원에 거북이나, 양서류, 곤충류 등이 더 있다.

그렇다면 서울숲 야생동물은 어떤 게 있나?

생태숲에 고라니가 있으니까 고라니들이 잘 살고 있는지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한다. 또 공원에 야생조류들이 많이 있다. 다치거나 어미에게 버려졌거나 해서 공원 관리

사무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로 야생동물 센터로 보낸다. 하지만 야생동물센터도 모든 동물을 다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친 새들을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 어미에게 버려진 새끼는 직접 포육해서 날려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희귀종은 무조건 야생동물센터로 보낸다.

사육동물, 야생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이 있다고 했다. 공원에 유기되는 동물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공원에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유기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잃어버린 경우다. 접수된 적은 없지만 유기된 걸로 보이는 떠돌이 개를 목격한 적은 종종 있었는데 잡지는 못했다. 사람에게 쫓겨 동네로 숨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 개나 고양이 보다는 그 외 소동물들을 ‘공원에 버리면 키워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 사실 공원은 버려진 동물을 거두지 않는다. 공원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공원에서 돌볼 수 있는 동물의 개체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무작정 받을 수 없기도 하다.



▲ 어미에게 버려진 맷비둘기를 인공 포육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어떤 동물들이 버려졌었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가끔 ‘거기(서울숲) 토끼 키우는데 기증할 수 있나요?’ 같은 문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기르던 동물을 기증한다는 건 엄밀히 기증이 아니라 유기라고 생각한다. 한참 전에 새끼를 뺀 토끼가 집이랑 먹이랑 이런저런 물품들과 함께 토끼장 앞에 버려져 있던 적이 있었다. 진짜 추운 겨울이었다. 정성스럽게 챙겨서 죽으라고 버린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솔직히 화가 났다. 유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서울숲에는 토끼장이 있어서 특히 더 쉽게 여기 버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버려진 토끼를 공원이 받는다고 해도 낯선 곳에서 적응하지 못해 죽는 경우, 텃세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버려져서 새로 들어온 토끼로부터 전염병이 옮겨 다른 토끼들이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토끼 사육장 앞에 임신한 토끼와 관련 물품이 함께 버려져있었다.

서울숲 같은 일개 공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게 많은 부분 해결해줄 거로 본다. 강아지뿐 아니라 집에서 동물을 기르겠다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면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원에서는 동물 등록을 포함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올해 성동구청,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서울숲에서 유기동물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 취소가 되면서 서울숲공원 단독으로 유기동물 관련 비대면 캠페인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나 동물보호단체는 의무도 있고 명분도 있지만, 공원은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유기동물 캠페인을 기획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유기동물은 공원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문제고 생명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공원도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 서울숲 토끼 사육장에는 20여 마리의 토끼가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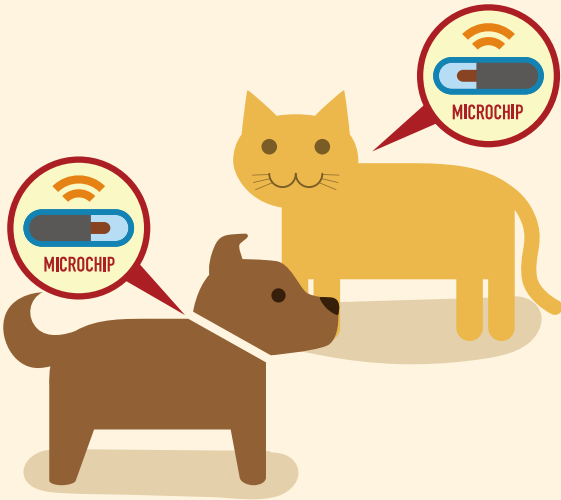
얼마 전 서울숲에 유기견으로 접수된 푸들이 있었다. 미용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사람도 잘 따르고 어느 정도 교육도 된 아이라 당연히 등록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칩이 없다고 하더라. 다행히 공원에서 SNS 등을 통해 알린 걸 보고 2~3일 안에 주인이 바로 찾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애완견조차 동물등록은 안되었다는 게 조금 의외였다. 등록이 되어있었다면 당일 바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그리고 어쩌면 동물등록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면 적어도 잃어버려서 유기동물이 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2개월령 이상 개들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로 확대될 거라고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animal.go.kr>)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면, 공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아니라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실 동물 등록도 단속이 병행되지 않으면 동물을 유기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슬프게도 동물을 쉽게 사고, 팔고,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사람들 인식이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고 성숙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바라는 것보다는 더디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한다. 서울숲에서도 2017년만 해도 그해 봄만 열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접수됐었는데 올봄엔 사실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꽃사슴 프로그램할 때 참여한 아이들이 '이거 키우고 싶어. 이거 데려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아이 엄마들은 보통 그냥 멋쩍게 웃고 만다. 그러면 내가 고양이 같은 것 안아보고 털 확 묻은 걸 보여주면서 '봤지? 해엑! 이거 털 봐봐.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해주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한다. 동물을 키우는 데 겪게 되는 이런 커다란 불편과 높은 책임감, 경제적 부담 등등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결정하고, 결정하고 나서도 두세 번 더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면 좋겠다. 하나의 생명을 정말로 책임질 마음과 결심이 있고,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막상 기르면 쉽지 않을 수 있다.



▲ 서울숲 사슴우리에서 꽃사슴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을 만날 기회가 없고,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고, 만지고, 교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서울숲공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동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가까이서 만나 교감해보는 경험은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 중단되었지만 추후에는 동물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더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서울숲의 동물들을 아끼고, 동물들과 시민이 만나는 건강한 방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아끼는 마음,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해 준 인터뷰여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서울숲의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2탄]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셀프자원봉사

'서울숲 쓰담 쓰담'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멈추었던 일상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에 조금의 활력이 더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서울숲 쓰담쓰담'은 공원을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담은 활동입니다.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고 접촉은 최소화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셀프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쓰담쓰담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고 건강 거리두기를 하며 할 수 있으며 쓰레기를 줍기 위해 굽히는 동작은 스쿼트 운동으로 생활 속 운동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서울숲 방문자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뒤 '쓰담 봉투'를 받아 곳곳을 산책하며 쓰담쓰담 활동하면 됩니다. 추천 받은 산책코스를 돌아도 좋고, 발길 닿는 대로 공원의 길을 따라 쓰레기를 주워도 좋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아이랑 의미 있는 환경 봉사에 참여하고 싶을 때, 귓가에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서울숲에서 지구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떠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과 시간이 멈춘 지금,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함께해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공원을 즐기는 방법

서울숲 쓰담쓰담

- 기간: 2020.06.~ 쓰담 봉투 소진 시 까지 (10:00~17:00)
- 대상: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준비물: 편안한 복장, 장갑이나 가벼운 집게, 즐거운 마음 (쓰담 봉투 제공)
- 혜택: SNS인증샷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숲 초록키드' 증정(선착순 100명)

서울숲공원 방문자센터 신청

서울숲 쓰담쓰담 봉투 받기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 줍기

봉투를 채우면 가까운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SNS를 통해 건강한 활동 알리기
#서울숲쓰담쓰담
#서울숲쓰담걷기 #쓰담이

* '서울숲 쓰담쓰담' 은?

쓰담쓰담은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운동인 플로깅의 우리말이다. 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이며 달리기 대신 걷기를 하면 '워킹(Walking)'과 합성해 '플로깅(Plogging)'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플로깅(Plogging)'의 대체어로 '쓰담달리기'로 제안하였으며, '쓰담쓰담하다'에서처럼 '손으로 자꾸 살살 쓸어 여루만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행위의 뜻도 살리면서 환경을 보듬고 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서울숲 코로나19 힐링프로젝트 2탄 '제비논 모내기용 모를 키워보자!'

서울숲은 장기화 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힐링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울숲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되면서, 안전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울숲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지요.

서울숲 초록친구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숲에 오세요!', '서울숲에서 함께 만나요!'라고 할 수 없다면 '서울숲을 배달해보자'는 기획이었지요.

예정되어있던 유아숲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 취소된 후,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지난 4월 10일 첫 번째 초록친구를 전달했습니다. 모두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셨지요. 특히 아이들이 저희의 선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기에 저희 마음도 훈훈해 졌습니다. 그래서 1달여 만인 지난 5월 20일, <초록친구2>를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숲 논습지(제비논)에 심을 모를 유치원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짝이 난 볍씨들을 화분에 심어 배달했지요.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귀여운 모 싹을 눈에 심게 무럭무럭 키워주실 수 있도록 가져다드렸습니다. 또 근처 장애인복지관에는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달된 모를 잘 키워주시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함께 서울숲 제비논에 모내기를 할 계획입니다.

서로가 거리를 뒤흔치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숲 초록친구를 통해 연결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보내주신 해바라기를 심으려고 배양토도 구입해봤어요! 오늘 주신 모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물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등 많은 질문이 이어짐. 잘 키워서 6월에 서울숲 제비논에 직접 심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코로나로 서울숲을 못 가게 되면 포기나누기로 직접 심어볼게요!

-경수초병설유치원

5월에 주신 해바라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는 어린이집 입구에 놓고 키우면 되죠? 6월부터 수업 시작할 때 빌게요!

-별초통어린이집

어린이집 화단에 나와서 식물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쌀을 직접 키우는 게 재미있는 체험일 것 같아요! 서울숲 제비논 기대됩니다.

-텐즈힐두리어린이집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숲에서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 서울숲 논에서 자라는 모를 직접 키워보고 관찰해보고, 6월에는 논에 직접 심어보는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숲컨서번시 김선주매니저

[서울숲 장애인화공원 조성, 숲속놀이터 리뉴얼 오픈]

‘함께 놀 권리’를 위한 숲속놀이터

서울숲을 대표하는 놀이시설인 숲속놀이터가 장애통합 놀이터로의 변신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 새롭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놀이터 리뉴얼은 서울시의 무장애친화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공원) 등에 따라 공원 현황을 진단 후, 기존 시설의 장애요소를 최소화 하는 공사가 숲속놀이터 뿐 아니라 서울숲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의 공원에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공원 내 도로를 정비하고, 계단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이용해 공원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통합휴게공간 데크와 휠체어용 피크닉테이블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도 숲속놀이터의 변화는 더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기대를 하게 합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편견 없이 어울려 노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조합놀이터(미끄럼틀, 그물해먹 등), 휠체어를 탄 채 즐길 수 있는 회전 놀이기구,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니버설그네 등이 기존의 놀이기구들을 대체했지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나은 시설과, 사회문화적인 인식 변화 등 아직 더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서울시의 무장애친화공원으로서 서울숲도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서울숲은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놀고 즐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두의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 i V E



함께해요,
랜선으로 경험하는
공원에서의 하루!

6월 18일 목요일

#인택트 #도시공원활용 #숲속피크닉 #서울숲토크쇼 #비밀의숲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소수의 현장 참여자(사전모집)와 함께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숲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주세요.

  seoulforestpark

#어기야디어차



서울숲 생태숲 호수에 사는 생물들을 어부가 되어 잡아 관찰해보자!
어기야디어차!

- 6월 20일 오후 2시~4시
- 어린이(초등) 및 가족 10명

#벼를키우자!



서울숲 논습지(제비 논)에서 제비 먹이식물 벼를 길러 제비에게 선물해보자!

- 6월 20일 오후 2시~4시
- 어린이(초등) 및 가족 10명

#서울숲의곤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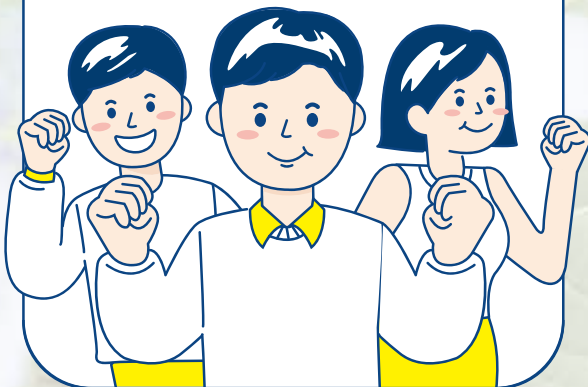


서울숲 곳곳에서 곤충을 잡아보자!
곤충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서울숲 파브르'가 되어보자!

- 6월 13일 오후 2시~4시
- 어린이(초등) 및 가족 10명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5가지 핵심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더 자세한 사항은 ncov.mohw.go.kr를
참고해주세요.